

자가배합사료 체제로

정책 방향 틀때



김시영
(구룡농장 대표)

어떤 산업이든지 효과적인 능력 발휘를 위하여 업체의 경영주체가 자주적인 의사에 따라 경영진로를 정하여 매진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 방법이 비도덕적이고 비사회적이지 아니라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까지 어떤 동기에서 그렇게 되었건 간 축산 농가에서 자가배합을 할 수 있는 길을 법적·제도적으로 제한하여 온 것이 아주 크게 잘못된 일이라 사료된다. 덕분에 외국의 동종 업계와 경쟁에서 아주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고, 현재 한국 축산업의 존재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허나 농가에서 사료를 제조하여 가축을 사육하겠다고 생각하는 농가는 많지 않다. 이것은 지금까지 축산농가와 상당한 결과이다. 그것은 어려워져 감히 생

각을 못하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한다. 그것은 제도가 양축인들에게 그 능력을 억제해 온 결과이다. 지금부터라도 눈을 떠야 한다. 그래야 살 수 있다.

정부는 양축인들에게 농가 스스로 사료를 만드는 능력을 빼앗았던 것 같이 앞으로는 그 능력을 부여하는 데 노력을 해서 양축 농가 스스로 일어나는데 용기를 줄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렇다고 공장 사료 제조를 옛날과 반대로 제한하는 제도를 주어서는 아니 되고 다만 농가 스스로 사료를 제조할 수 있도록 제한된 법적·제도적 조치를 없앴으면 하는 것이다.

1. 자가 배합의 필요성

첫째, 생산비 절감을 위해 절대 필요하다.

몇년 전 모신문사에서 주최한 “사료 산업의 미래”에 대한 토론에서 본인이 생산자 대표로 토론장에 나가서 발언하기를 축산업의 주체는 양축을 하는 축산 농가다. 그래서 축산 농가가 살아야 사료 제조업, 동물약품, 축산물 제조 및 판매업이 다 살 수가 있으므로 축산 농가를 살리기 위해 자가 배합의 걸림돌이 되는 법적·제도적인 개선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농가 스스로 사료를 제조하여 가축을 사양함으로써 생선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시대가 와야 한다고 했는데 모대학교 교수 한 분이 이를 전면 부정하였다. 그 이유는 우선, 농가 스스로 사료 배합비를 짤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를 놓고 말하면 이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이것도 발전을 한다. 그렇다면 반대로 질문을 하겠다. 현재 배합 사료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제가 볼때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물류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교수님은 한꺼번에 많은 양을 구입하기 때문에 물류 비용이 적게 든다고 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 그러하냐 하면 항구에 도착한 원료사료는 공장으로부터 곡물 수송차량으로 별크로 수송이 된다. 농가도 똑같

사료원료수입의 자유화, 주문형 비타민제 공급방식으로서의 개선, 한국형 사양표준 작성, 사료원료특성의 올바른 이해 등을 통해 자가배합을 실현해야 하며, 이를통해 생산비 절감, 적절한 질병통제, 항생제 잔류물질 해결할 수 있어...

은 운송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사료 배합 공장으로서 운송되어 배합사료로 제조하여 다시 상차하여 운송하면 이것이야 말로, 항구에서 농장으로 직송된 것보다 물류비용이 더 든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식적일 것이다. 물류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이상에서 논한 사료배합표 작성 문제와 물류비용 문제로 자가배합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없고 양축 농가의 수준 높은 축산업과 경영 개선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상품성있는 돼지고기 생산과 각종 문제점 해결을 위

하여 기존의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농장은 농장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하여도 그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 진단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지만 농장에서 배합을 하면 사료의 자세한 내용을 알기 때문에 문제점 진단과 해결 방안을 찾기가 훨씬 쉬워진다. 만약의 경우 항생제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 이중으로 항생제가 들어가지 않고 치료기간만 사용하므로 소비자에게 좋은 질의 돼지고기를 공급할 수도 있다.

또 돼지고기에 어떤 기능을 부여하는 작업을 할 경우도 손쉽게 그에 적합한 사료를 제조하여 농장마다 특색있는 돼지고기로 소비자 층을 확보 할 수 있어 무한 경쟁의 무대에서 살아남는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다.

2. 농가 배합시 해결되어야 할 점

첫째, 수입 곡류가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농가에 공급되어야 한다.

현재는 모든 사료 자원을 배합사료 공장으로 가도록 되어 있어 농가에서 자가배합을 하려해도 곡물 구입비용이 많이 들고 구하기도 어렵다. 사료 원료의 유통에 문제가 되는 법적·

제도적 불합리한 점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둘째, 비타민 첨가제의 구성비가 문제이다.

현재 동물 약품 취급점에 유통되는 비타민 첨가제의 구성비는 지금부터 20여년전 제가 대학 시절에 보던 그 비타민 첨가제가 현재까지도 유통이 되고 있다. 그 당시 돼지와 지금의 돼지가 얼마나 변했는가?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논문은 얼마나 많은가? 이것은 그렇게도 변하기가 싫었나... 그러나 그렇지만도 아닌 듯 싶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당국은 새로운 구성비의 첨가제를 등록하려면 그렇게 까다롭게 하기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다 하였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달리라고 독려해도 부족한 마당에 족쇄를 채우고 있는 것이다. 필요한 사람이 필요에 의하여 주문하면 첨가제를 만들어 주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야 하겠다.

셋째, 사양표준의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축산 선진국들은 자기 나라에 적합한 사양표준을 제정하여 각국마다 서로 다른 사양표준을 사용하고 있다. 각 나라마다 육종된 종돈에 맞추어 사양표준을 제정하였고, 표현 방법도 조금씩 다른 듯 싶다. 우리

나라에 제일 많이 알려진 NRC 사양표준은 미 농무성에서 제정한 사양표준으로 에너지, 단백질, 비타민, 무기물에 대하여 비교적 알기 쉽고 상세히 만들어 놓아 이용하기가 편리하게 표기되었으나, 그 표시된 수치는 필요로 하는 영양소의 최저 수치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NRC 사양표준을 옮겨알고 사용하려면 아주 많은 NRC 사양표준 이용 경험을 쌓아야 옮겨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다른 사양표준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사료된다. 그런데 현재 우리 나라에는 이를 오래 경험한 기술자가 사료배합 공장 이외에 농가에서 경험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게 문제다. 자가배합이 허용되고 오랜 세월이 흘러야 사양 표준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에 접근할 것이다.

넷째, 사료원료의 특성 파악을 정확히 해야 되겠다.

채종박의 잘못이용으로 번식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든지, 옥수수과 같이 흐르는 지방을 생산한다든지, 수수와 같이 단백질 이용률이 떨어진다는지, 어분을 많이 사용하면 돼지고기 맛이 떨어진다는지 하는 사료마다 특성이 있는데, 이러한 모든 특성을 잘 파악하여 돼지 생산에 지장을 주지않고, 돼지고

기 질이 우수한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좋은 배합사료를 만드는 데 모든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더 나아가서 돼지고기에 또 다른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새로운 사료 자원을 찾는 데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다.

3. 맺는 말

농가 배합을 실시하면 농가 주위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값싼 부산물을 이용하여 생산비를 절감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여하튼 자가 배합을 하면 생산비 절감, 적절한 질병 통제, 항생제 잔류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자가배합을 하기전에 사료에 대한 특성, 사양표준 이용 방법을 숙달해야 되고, 정부에서도 자가배합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사료유통 문제, 첨가제에 대한 문제, 사료배합 시설비와 운영비 자금지원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자가 배합이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